



길들여지는 아이들
크리스 메르코글리아노 지음

아이들의 잠재된 ‘야성’ 깨워라

어느 샌가 우리 아이들은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는 사회에 길들여져 있다. 작금의 아이들 내면에 살아 숨 쉬는 생명력과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미국의 대표적 대안학교 알바니프리스쿨에서의 교육 경험을 토대로 한 책이 발간됐다. 저자 크리스 메르코글리아노가 쓴 ‘길들여지는 아이들’은 부모와 교사들이 길들여지는 교육 행태에 대한 비판적 대안을 제시한다. 저자는 역사, 생물학, 교육학 등 다양한 분야의 자료를 토대로 내면에 잠재된 ‘야성’을 깨우는데 초점을 둔다.

앞으로 평균 수명은 늘고 젊은 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 훨씬 많은 자유를 누릴 것이다. 그러나 ‘멈춰버린 성인기’라는 용어가 생길 정도로 지금의 청소년들의 성인기 이행단계는 길어지고 있다. 아이들이 자립적이고 활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들 꽃 같은 야성을 회복해야 하는 이유다.

〈민들레·1만5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현판기행
김봉규 지음

사찰·정자에 걸린 현판이야기

궁궐, 사찰, 정자, 누각 등 우리의 옛 현판에 대해 종합적으로 다룬 책이 출간됐다.

현직 언론인 김봉규씨가 쓴 ‘현판기행’은 옛 현판을 둘러싼 역사와 문화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 놓는다. 신라의 명필 김생의 글씨부터 일제강점기 조선 총독도 인정했던 김중호의 글씨까지, 사찰과 서원은 물론 유생들이 공부하던 강당에서 마음에 점을 찍던 정자까지 다양한 현판에 얹힌 이야기를 소개한다.

정설과 야사를 포함한 ‘역사’ 그리고 당대 학문의 흐름과 서체의 발달 등 ‘문화’에 대해 풍부하게 다루고 있다.

책은 현판이 걸린 장소에 따라 ‘정자와 누각에 걸린 현판’, ‘서원과 강당에 걸린 현판’, ‘사찰에 걸린 현판’, ‘더 알아보는 현판 이야기’ 등 네 개장으로 나뉜다. 선비의 삶과 정신이 오롯이 담겨 있는 현판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담앤북스·1만6000원〉
/김경인기자kki@kwangju.co.kr

미래 변화의 주체인가, 변형의 객체인가

변화의 미래

마티아스 호르크스 지음



변화는 모든 시대 화두가 될 정도로 중요한 가치 가운데 하나다. “변해야 산다” “변하지 않으면 도태 된다”는 말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 여기에는 늘 생존이라는 절체절명의 당위가 뒤따른다.

변화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다. 그렇다면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야 하는가? 우리의 미래 모습은 어떻게 전개될까? 사람들은 다양한 질문을 던지며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한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변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은 빠져 있다. 과연 ‘변화’는 무엇이며, 무엇이 우리를 변화하게 하는가?

유럽 최고의 미래학자이자 영향력 있는 트렌드 전문가로 평가받는 독일 마티아스 호르크스가 ‘변화’를 화두 삼아 ‘변화의 미래’를 펴냈다. ‘위대한 미래’의

저자이자 ‘미래연구소’ 소장인 그가 진단하는 변화는 ‘성장’의 다른 이름이다.

저자는 변형과 변화를 엄격히 구분한다. 변형은 외부적인 과정으로, 강요나 기술적인 트렌드에서 비롯된다. 사람들이 변형에 적응할 수는 있지만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변화는 선택, 자유, 의식의 과정이 결합되어야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세계가 다양하게 변형되는 것과 맞물려 사람들의 내면 또한 변화된다는 입장이다. 마치 에벌레가 나비로 변화되기 위한 과정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에벌레가 바람과 햇빛, 비라는 외부적 자극 외에도 스스로 자신을 ‘소화시킴’으로써 완벽한 변화의 형태로 전이되는 이치다.

즉, 우리 자신이 주도자가 될 때라야 변형의 객체가 아닌,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다양하게 변형되는 세계에 힘입어 우리의 내면 또한 바뀌는 것이 참된 변화다.

그렇다면 변화가 좌절되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 답은 간단하다. 두려움이 혼란을 가져오는데, 위대한 문화를 일구었던 마야 문명이 명백한 사례다.

자연에 대한 장애와 죽음 공포증이 있었던 마야인들은 지나칠 정도로 미신에 사로잡혀 있었다. 물론 미래를 예언하는 감수성이 마야 문화의 상징성을 배가시킨 측면이 없지는 않다. 그럼에도 지나친 의식화는 ‘내부의 적’을 양산시켰고, 폭력과 증오로 귀결되었다.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던 마야문명은 미래의 변화에 대처하지 못해 멸망을 피할 수 없었다.

저자는 사회 전체가 두려움과 굴욕이 라는 마력에 빠지면 대부분 ‘마야 증후군’이 나타난다고 강조한다. 두려움이 크고 희망이 적을수록 폐쇄적이고 공격적인 집단으로 변모된다는 것이다. 나치의 선동, 북한의 호전적인 성향, 소말리아의 무정부 상태, 팔레스타인 지역 갈등 등이 그러한 예란다.

한편으로 두려움은 변화의 추진력이 되기도 한다. 저자는 ‘위기는 혁신의 에너지’라고 주장한다. 1990년대 초 핀란드 사례는 이를 방증한다. 당시 핀란드는 실업률이 3%에서 19%로 치솟을 만큼 경제 위기에 직면했었다. 구소련 붕

괴로 러시아가 경제가 휘청거리자 국경을 이웃하고 있던 자국이 검잡을 수 없이 경제 불안에 빠져들었다.

이때 그들의 대응은 어떠했을까. 그들은 국민 모두가 나서 가족하리만큼 공정하고 실질적인 논의를 했다. 단호한 경제 조치와 아울러 연구와 교육에 막대한 투자를 했다. 물론 그 전체 조건은 국민 합의였고, 이로 인해 그들은 새로운 사회 모델을 창출해냈다.

이와 반대되는 사례는 어떤가. 1960년대까지 ‘아메리칸 드림’으로 인식되던 미국 미시간주 자동차 산업이 그 예다. 고액 위주의 경영에 소홀했던 탓에 심한

불경기에 시달리고 있다.

저자는 ‘21세기형 관리’는 전문가의 의견을 다각도로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략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라고 강조한다. 또한 민주적이고 세계 개방적 개념인 창조성은 모든 사람을 연결시키는 요인이라고 분석한다.

때문에 ‘창조의 길’은 다원적이며 개인 주의적인 문화를 위한 최적의 시스템이다. 21세기 책임 정치는 시민사회, 참여, 화해 등 여러 요인을 토대로 변화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협력을 구체화 낼 때 구현된다. <한국경제신문·2만2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안중근은 사람들의 영웅이자 평화의 영웅”



안중근, 아베를 쏜다
김정현 지음

8·15 해방 69주년을 즈음해 흥미로운 소설이 출간됐다.

작가 김정현이 쓴 ‘안중근, 아베를 쏜다’라는 다소 도발적인 소설이 바로 그것이다. 작품은 반성온커녕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뻔뻔한 태도를 취하는 일본을 향한 ‘의미 있는 경고’로 읽힌다.

소설이 아니면 일본 총리인 아베를 누

가 쏘겠는가? 아베가 누구인가. 그는 안중근을 “살인죄로 사형 판결을 받은 범죄자”라고 규정했던 인물이다. 작가 김정현은 소설을 통해 아베로 상징되는 일본의 왜곡된 역사 인식을 정면으로 겨냥한다.

작가는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3년에 걸쳐 치밀하게 자료 조사를 했다. 안중근이 뒤편 감옥에서 쓴 ‘안중근 자서전’ (원제 안을칠 역사)과 재판 당시 신문 기록, 공판 기록도 참고했다.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과 현재라는 시간을 넘나들며 전개된다. 생생한 역사 소설이자 판타지 소설인 셈이다. 책은 크게 3부로 구성돼 있는데, 1부와 2부에서는 안중근과 이토에 관한 사건을, 3부에서는 안중근과 아베에 관한 사건을 다룬다.

소설의 핵심인 3부는 1910년에 생을 마감한 안중근이 일본의 아베를 찾아오면서 벌어지는 사건이다. 특히 아베를 저격한 뒤 체포된 안중근이 재판장에서 아베가 저지른 죄목에 대해 날날이 고하는 장면은 압권이다. 이 외에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 태평양 전쟁 과오를 반성하지 않는 15개의 항목을 들어 일본의 과거와 현재 죄목을 날날이 열거한다.

작가는 이렇게 말한다. “안중근은 영웅이다. 우리만의 영웅이 아니라 사람다운 사람들의 영웅, 평화의 영웅이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으로서 영웅이 되었음을, 특히 침략의 뜻을 품은 이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열림원·1만48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영원의 철학
올더스 헉슬리 지음

“그대가 그것이다” “모든 것에서 하나만을 보라”

‘신은 어디에 있는가. 진리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대부분의 종교가 오랜 탐구와 모험 끝에 내미는 고민에 대한 결론이 책의 서두에서부터 곧장 제시되고 있다. ‘멋진 신세계’의 저자 올더스 헉슬리가 쓴 영성 고전 ‘영원의 철학’이

출간된 지 70년만에 국내 최초로 완역돼 출간됐다. 동서고금 420여개의 인용문을 통해 ‘영원의 철학’을 다채롭게 소개하고 있는 책은 1945년 출간 이후 끊임 없이 언급되고 재인용됐으며, 21세기에 도 그 깊이와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저자는 엄청난 양의 종교적 가르침들을 날날이 검토하고 문학·역사·철학·예술 등 인류의 다양한 정신적 유산에서 진리의 조각들을 모아 그 바탕에 흐르는 공통된 핵심을 발견하고 모자이크처럼 보여줬다. 인용문만 따로 골라 읽어도 시간가는 줄 모를 정도로 흥미로운 인문학적 보고이자 탁월한 종교·명상서이기도 하다.

〈김영사·1만98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since 1982

창업 32주년

국제보청기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www.kjhr.com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충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창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보약 홍삼은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
·마음에 평안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062-369-9227**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120,000원

농협 653-12-003100
에급주 박주환